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성경: 창세기 50장 14-21절  
(Tag:한국,애국,갈등,정치적갈등,북한,구약성경,창세기)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50:14-21)

야곱의 가정에는 구조적인 갈등이 있었다.

야곱은 네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그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내는 단 한명이었다.(엄청 불행한 야곱)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는 동생이었고 동생을 시기하는 언니되는 야곱의 아내는 아들이 여섯이나 있었다. 나머지 두 아내는 종들이어서 구조적으로 소외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을 지극히 편애하여서 그를 마치 장자처럼 대우하였다. 그런 아버지의 편애는 요셉에게 독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아들들로부터 미움을 독차지게 되었다. 게다가 그는 막내였다.(물론 나중에는 동생을 보게 되지만, 그는 동생을 얻는 대신에 어머니를 잃게 된다.-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처지에서 기구함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 큰 아들들은 단순히 샘이 나거나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주하며 실제로 미운 동생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작 요셉 본인은 형들이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는지를 몰랐다. 그의 성품 자체가 미워한다든지 갈등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에서부터 멀었다. 설령 그가 갈등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상황을 돌파할 것인가에 집중하였다.

아무튼 그는 갈등상황을 예측하는 것에는 민감하지 못해서 결국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든지 하게 된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갈등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이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다. 여전히 요셉은 이 사건이 갈등을 야기할만한 사건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형들은 달랐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들의 과거 악행이 불현 듯 악몽으로 엄습해 왔다. 이제 아버지도 죽었으니, 요셉이 보복을 하게 된다면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살려 달라고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하염없이 울었다. 결코 건널 수 없는 이복형제간의 거리감을 가늠하는 순간이었으리라.

구조적인 갈등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북쪽의 우리 형제는 천안함을 폭파시킨다든지, 연평도에 폭탄을 쏘아댄다든지, 공개처형에 처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대부분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싶어한다. 이들에게 무력이나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들은 자기의 이념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일 것이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고 악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상황이 허락되고 갈등을 잠재우고 싶다면, 그리고 그가 자기가 믿는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라면 그는 사람을 죽인다.(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마귀는 갈등을 유발하고, 갈등상황을 이용해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낸다. (특히 한국사회는 예로부터 망자들을 통한 갈등상황을 잘 이용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요셉이 형들의 부탁을 받고 왜 눈물을 흘렸을까? 그가 갈등상황에 대해서 무심하였고, 더 친근하게 형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용서한 그들과 다정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과연 그것이 충분히 용서한 것일까? 결국에는 갈등의 씨앗을 여전히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북한과 갈등관계에 있다. 더 오래도록 일본과 갈등관계에 있다. 어찌 보면 한쪽은 동족이요, 한쪽은 가장 가까운 나라다. 그런데 가장 원수처럼 지내고 있다.

여순반란 사건때와 비슷하게 우리는 작년에 국회까지 침투해 들어간 북한 추종세력을 목도하였다. 이런 상황이니 사실은 언론, 교육, 행정부, 사법부, 예술, 심지어는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북한을 추종하거나 동조하거나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를 짐작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또한 북한은 공공연하게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정치 집단이다. 북한은 IS보다 더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인다. 이슬람국가들은 그래도 거짓말이기는하지만 자신들은 평화주의자들이고 일부 과격한 테러리스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인다고 하니, 표면적으로는 북한보다 덜한 정치세력이라고 해야 하나?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내에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 대형교회 죽이기에 동참한 세력들이 이제는 도를 넘어선지가 오래다. 각종 언론과 문화매체를 통해서 마녀사냥 하듯이 기독교를 비판한다.

그러니 이 세대에 남한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념갈등, 지역갈등,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종교적 갈등, 타민족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이단들과도 싸워야 하고, 심지어는 카톨릭과도 견제해야 하며, 같은 개신교인들끼리도 교리논쟁, 교파논쟁, 작은교회 큰교회 논쟁, 은사에 관한 논쟁, 땅굴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 베리칩에 관한 이야기로 사실 피곤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옆친데 덮친 격으로 IMF도 모자라 2008년 미국발 프라임 모기지론의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한 가운데 2010년부터 불어닥친 부동산 허리케인은 빔을 내서 교회를 짓거나 큰 예배당으로 이사한 작은교회를 무수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기성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성도들이 기성교회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국기독교 율법주의가 더 부추김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새물결 운동을 하던 교회들은 한풀 꺾이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남한은 지금 갈등왕국이다. 말마다 판지를 걸고, 사건마다 원망과 비판이 먼저다. 동쪽으로 가면 비난하고, 서쪽으로 가면 비아냥이다. 방송인들은 아예 갈등상황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절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1. 우리는 결코 비난하지 말자. 특히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거나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자.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고, 큰 교회는 작은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살자. 우리는 남이 아니다. 교회만큼 회개에 민감한 존재들은 없다고 믿자.

2. 교회는 이타적어야 교회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려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는 다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님과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기쁨이요, 보람이다.

3.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며, 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4. 교회의 주적은 마귀이다. 교회는 세상의 죄악과 싸워야 한다.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죄악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죄인을 사랑하되, 죄악은 값을 치루어서라도 소멸해야 한다.

5.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 섬김이며, 희생이다. 우리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 전략이 되어야 한다.

6.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 민족의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자. 민족의 기드온을 달라고 기도하자. 한국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시련을 이기는 열정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9절 (tag:시련, 열정, 환난, 기쁨,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삼키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6 이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8:1-9)

삶이란 스타일이다.

개미의 삶이 있고, 사자의 삶이 있고, 독수리의 삶이 있다.

개미가 사자처럼 살 수 없고, 사자가 독수리처럼 살 수 없다.

사람에게도 스타일이 있다.

개미는 자기의 스타일을 바꿀 수 없다.

사람도 자기의 스타일을 바꾸기 힘들다. 그러나 사람은 힘들지만 바

꿀 수 있다.

1. 환경이 바뀌면 스타일이 바뀐다. (이사나 여행이 도움이 된다.)
2. 건강이 바뀌면 스타일이 바뀐다.
3.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스타일이 바뀐다. (진학, 취업, 해고, 결혼, 사별, 장애 등이 스타일을 바꾼다.)

스타일이 바뀌어야 할 사람은 많다. (직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때문에, 비전 때문에)

-환경이 바뀌거나, 건강이 바뀌거나, 인생의 전환점이거나 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타일이 바뀌려면?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신앙이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됨;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변화된다. 토기가 자기가 되려면 불가마에 들어가서 그 형질이 변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시련을 이기는 열정이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삶의 스타일을 위해서 모든 시련을 이겨내며 열정을 불태운다. (심지어 깡패들도 죽음을 무릎쓰며, 거지들도 추위를 이겨낸다.-그들은 가난이 좋은게 아니라, 가난보다 더 나쁜 것 보다 좋을 뿐이다. 억압, 잔소리, 괴롭힘 등)

-당신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시련을 이겨내고 있으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 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도, 극심한 가난도 기독교인의 삶의 스타일을 변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 기쁘게 살아갔다.

-기독교인들은 호화로운 삶을 마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호화롭게 살아보기 위해서 살지는 않는다.



-기독교인이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고 편리하며 보람있게 사는 사람들이다.

3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5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